

목포대, 디지털 미래 이끌 인재 육성한다

교육부 주관 '디지털새싹 사업' 5년 연속 선정 호남·제주 권역 AI·SW 교육 확대...맞춤 교육

국립목포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한국과 학창의재단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27일 목포대 AI-디지털 선도교원 양성(LEAD)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인재개발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제주 권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확산과 학생 맞춤형 AI·SW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이다. 목포대는 그동안 맞춤형 교육

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다문화 학생, 최근 4년간 참여 학생은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10억원 규모로 약 4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별 수준에 맞춘 단계형 교육과정으로, 기본과정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 AI·데이터 소양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화과정은 생성형 AI 활용,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최근 교육부 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제공=목포대학교

이번 사업은 IT·SW 교육 전문가인 한국정보인재개발원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4년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목포대의 지역 네트워크와 교육 인프라에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결합해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교육청, 학교,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는 공교육 연계형 모델을 구축해왔다. 수업 이후에도 자기주도 학습과 심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2026년 사업은 전남교육청의 '대학 연계 방과후 AI 프로그램'과 연계해 초·중등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새싹 사업의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란 목포대 디지털AI혁신연구소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 고구마 '호풍미' 재배 확대 높은 당도·우수한 상품성 '호응'

기후변화로 고구마 병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남군이 국내 육성 품종인 '호풍미'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병해에 비교적 강하고 수량성이 안정적인 데다 당도와 식미, 외관 상품성까지 갖춘 품종으로 평가되면서 농가 선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처음 보급된 호풍미 재배면적은 2024년 48ha에서 올해 300ha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25년 기준 해남지역 전체 고구마 재배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호풍미 확산의 배경에는 최근 농가들이 겪는 재배 환경 변화가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덩이줄기썩음병 등 병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호풍미 재배 확대를 위해 조적배양묘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농가에 공급한 호풍미 조적배양묘는 약 19만8000본에 달한다.

국내에서 육성된 호풍미는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하고, 외관 상품성도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어서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 '카운트다운'

내달 2~7일 해변공원·해양치유센터 일원서 개최

완도군이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중점 추진 과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부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44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 주요 내용으로는 해조류 이해관, 주제관, 산업·홍보관 등 전시 시설 구축,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와 해조류 생활 체험 등 12종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맨발 걷기 축제, 해외 바이어 초

청 수출 상담회와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블루카본 가치 등을 널리 알리고 박람회가 완도가 글로벌 해조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내달부터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

돌봄동행·운동지도 등 5개 사업 수행기관 선정

영암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5월 1일부터 영암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 통합돌봄추진단은 최근 수행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5개 분야 사업 운영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선정된 사업은 가사지원, 영양식사지원, 돌봄동행서비스, 방문 맞춤 운동지도,

효도복지마을 운영 등 5개 분야다. 영암형 사랑복지센터, 영암지역활성센터, 가나나농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방문진료와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영암-올케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고독·고립 위험가구 기획조사

강진군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거주중인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기정보 27종 가운데 1종 이상 해당가구로 총 674명이다.

조사는 11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주

민복지팀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이장단 등 지역 인적 안전망도 발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고독·고립 위험자로 확인된 주민에게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전AMI 살림서비스' 사업, '안부살림우편서비스 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고독과 고립 상황을 예방할 방침이다.

강진=이진숙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